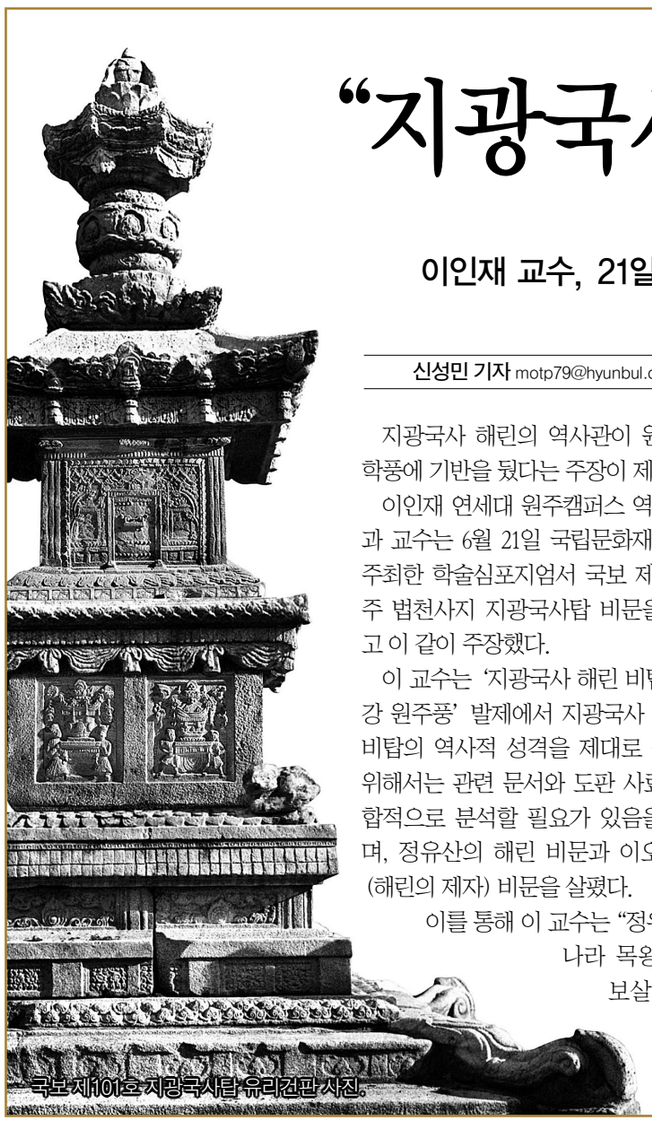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탑 유리건판 사진.

"지광국사 역사관, '원주 학풍'에 기반"

이인재 교수, 21일 지광국사탑 학술심포지엄서 주장

원주 원씨 후손인 지광국사
집안 가풍따라 복희역 연구
'기자고도' 주장, 가풍 영향

승탑비 상단 묘사된 이상세계
고구려 · 고조선 등 역사상 구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광국사 해린의 역사관이 원주 지역 학풍에 기반을 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재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6월 21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서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비문을 분석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광국사 해린 비탑과 남한강 원주풍' 발제에서 지광국사 승탑원과 비탑의 역사적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와 도판 사료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며, 정유산의 해린 비문과 이오의 소현(해린의 제자) 비문을 살폈다.

이를 통해 이 교수는 "정유산은 주나라 목왕을 문수보살이 돕고, 양나라 무제를 미륵보살이 도왔듯이, 지광국사 해린이 고려 현종의 고려 중흥과 문종의 불교국가 건설을 도왔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고려 문종의 불교국가 건설은 대장경 각경 사업 주도로 해석되지만, 고려 현종의 고려 중흥을 어떻게 도왔는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지광국사가 1021년 평양 중흥사 법회에서 '기자고도(箕子古都 · 기자조선의 옛 수도)'를 주창한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고려는 거란과 경쟁을 하고 있던 시절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기자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 확보가 중요했다. 지광국사는 현종을 보좌하며 이 같은 역사적 전통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했고, 이는 자신이 성장한 원주 원씨의 가풍과 지역 학풍에 기반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지광국사의 할아버지는 음양학에 조예가 깊었고, 증조부 · 고조부는 모두 복희역을 연구했다.

이 교수는 "지광국사는 가문에서 배운 역학과 음양학, 역산학 등을 토대로 기자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계승의식을 확보했다"면서 "그 결과 현종은 고려 중흥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문종은 거란에 대해 고려는 기자 조선을 계승한 왕조라는 점을 당당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승탑비와 승탑의 제작자들은 지광국사 역사관들을 반영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승탑의 상단에 표현된 이상세계는 "용화세계 구현보다는 기자 조선과 고구려, 단군 조선의 역사상을 구현해 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려 미(美) 상(想), 지광국사탑을 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고려중기 법상종(자은종)과 지광국사 해린'(남동신, 서울대) △ '고려중기 법상종 사원의 불교조각'(최성은, 덕성여대) △'탑비를 통해 본 남한강 유역의 불교미술'(정성권, 동국대) △'지광국사탑 장엄의 이해'(박지영, 국립문화재연구소) △'지광국사탑의 외래적 요소와 성격'(박대남, 국립문화재연구소)이 발표됐다.

한편, 지광국사탑은 국권침탈 직후 일본인에 의해 국외로 반출되었다가 반환됐으며, 한국전쟁 당시 포탄의 피해를 보았고, 10여 차례의 해체와 이건(移建) 과정에서 본래의 모습을 일부 상실한 상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지광국사탑의 보존처리를 위해 탑을 해체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존 · 복원 과정에서 석재의 산지를 추정하고 과거 복원에서 뒤바뀐 옥개석 도상의 위치를 바로 잡는 등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석학들에게 듣는 '동양철학 방향성'

동양철학회 7월 10일 좌담회

불교와 유교, 도교 철학 석학들에게 동양철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듣는 좌담회가 열린다.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신규탁)은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종로 숭인동 묘각사서 '한국 석학에게 듣는 동양철학'을 주제로 하계 학술발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좌담회는 '동양철학의 의의-보편학과 지역학 사이'와 '동양철학의 현재성-철학사와 철학 사이' 두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첫 주제에서는 동양철학 분야에 오상무 고려대 교수가 한국철학 분야에 이봉규 인하대 교수가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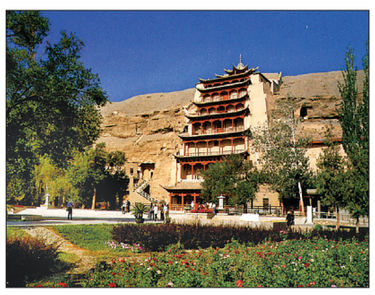
두 번째 주제에서는 불교와 유교, 도교 철학의 방향성을 되짚는다. 불교철학에 대해서는 허우성 경희대 교수가, 유교철학은 김성기 성균관대 교수가, 도가철학은 김성환 군산대 교수가 좌담자로 나온다.

신규탁 한국동양철학회장(연세대 교수)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한국철학과 동양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과연 보편학에 대한 추구인지 지역학에 대한 고수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아울러 유 · 불 · 도 삼교로 대표되는 동양철학이 지금 바로 여기의 우리에게 어떤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되짚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韓中日 학자 '돈황사본' 의미 살핀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6월 30일 국제학술대회

中런민대 · 日도요대와 공동 돈황 문헌 연구 성과 확인


중국 돈황 막고굴 석굴 입구 전경.

중국 돈황사본 문헌에 대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돈황사본과 불교학'을 주제로 제7회 한 · 중 · 일 공동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중국 런민대(人民大)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와 일본 도요대(東洋大) 동양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한 · 중 · 일 삼국의 돈황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차상엽 금강대 교수가 '종교의식 매뉴얼과 마하연의 선지(禪旨)'를, 최근 지론종 연구로 학위를 받은 이상민 동덕여대 교수가 '지론문헌 내 〈본업영락경소〉(S.2748)의 위치'를, 금강대에서 박사를 수료한 신사임 박사가 '북주(北周) 도안(道安)의 〈이교론〉과 당(唐) 법림(法琳)의 〈변정론〉과의 관계'를 발표한다.

중국 측에서는 장원량(張文良) 런민대 교수의 '남조 성실종(成實宗)의 이제설(二諦說)', 스징펑(史經鵬) 중앙민족대 교수의 '중국초기불교의 상속사상(相續思想)-상박3317호, 백2980호와 백3291호를 중심으로', 양위페이(楊玉飛) 의춘학원 교수의 '조법사(照法師)가 찬술한 〈승만경소(勝　經疏)〉(S.524)에 관하여'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논평자로는 9명의 발표자에 대해 최연식(동국대), 김지현(서울대), 김성철(금강대), 나우권(고려대), 조영미(성균관대), 간노 히로시(菅野博史, 소카대), 오카모토 잇페이(岡本一平, 게이오대), 이부키 아츠시(伊吹敦, 도요대)가 참여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3국 3개 대학 연구소가 학술대회를 순회 · 개최하는 방식은 동아시아 학술연구 ·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연구소가 이뤄낸 지론종 관련 돈황사본 문헌에 기반한 연구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강대와 런민대, 도요대는 10년 동안 '불교의 동아시아적 수용과 변용'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6월 서울에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제2회 '남북조 시대의 불교사상'을 중국 북경 런민대에서, 제3회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립과 논쟁'을 일본 도쿄 도요대에서 개최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대학기본역량진단 통과

서울 · 경주 캠퍼스 모두 207개 예비자율개선대학 포함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될 전망이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서울 · 경주 양 캠퍼스 모두 교육부가 실시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舊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통과되어 자율개선대학으로 예비 선정 됐다"고 6월 20일 밝혔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건전성, 수업 ·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 결과, 전체의 64% 정도인 207개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예비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통보는 8월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2015년 실시된 1주기 평가에서도 장학금 지원, 취 · 창업지원, 교육비 환원율 등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종학연구소 UCLA서 간화선 학술대회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오는 7월 17일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에서 제6회 간화선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선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주요 발제로는 스티븐 하인 플로리다 국제 대학 교수가 선종의 역사와 사유에 대해 발표하며, 알버트 웰터 아리조나대 교수가 송대 불교문헌을 중심으로 한 중국불교에 대해 조명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와 선'이라는 주제로 로버트 버스웰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인 불교학자들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좌담회도 예정돼 있으며, 수불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티베트역경원 티베트어 무료 특강

방학 맞아 6월 27일부터

티베트어 기초부터 회화까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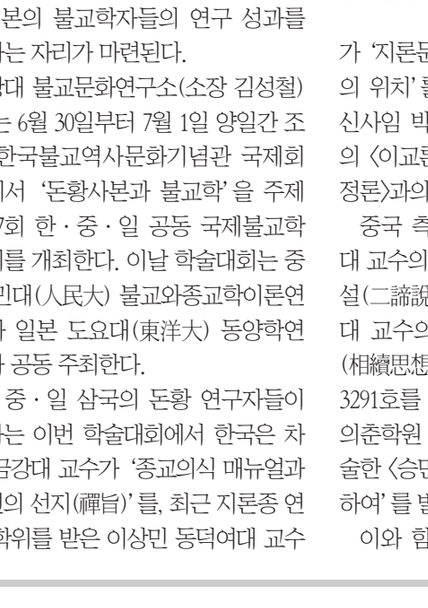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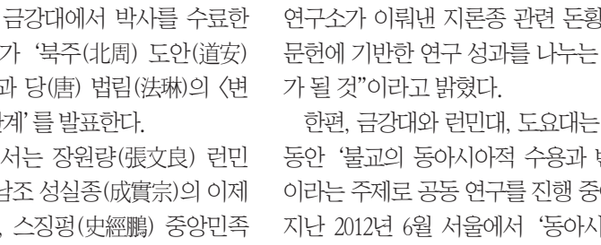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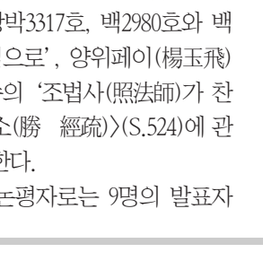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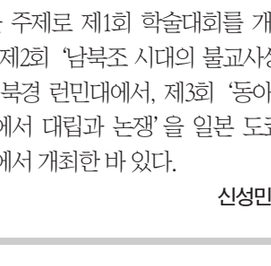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은 6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D408호에서 '티베트어 무료 특강'을 개최한다.

티베트어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강은 현대 티베트어와 고전 티베트어로 나눠 진행되며,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특강은 양승규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이 회화 위주의 현대 티베트어 초급과 중급을, 정상교 연구원이 티베트 고전문헌의 기초 문법 위주로 고전 티베어를 강의한다.

문의 (054)770-2893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